

## 2017년 하반기 (주)서울프린스호텔 협력, 문학창작집필실(소설가의 방) 사업 입주작가 선정심사 총평

○ 심사위원 : 노희준, 윤성희, 김서령, 윤고은

오랜만에 김서령, 윤고은, 윤성희 작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솔직히 작가들끼리 잘 안 만나지잖아. 잘 안 만나지만 또 항상 그리워하잖아. 심사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작가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까지 지원해준다니 화기애애할 수밖에.

화기애애했지만, 동시에 나름 과학적인 심사였다. 과학적인 심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심사위원 한명씩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추천이유를 밝히도록 하였다. 다른 장르의 지원자도 많았으나 꼭 장르마다 한명 이상 뽑아야한다는 압박감은 갖지 않기로 했다. 작가로서의 캐리어와 당장 입주 후에 예상되는 업적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되, 작업실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에서 먼 곳에 있는 분을 배려했다. 나이대도 골고루 배분되도록 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했으나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뜻이다.

이에 여섯 분을 선정했다.

심사위원 일동  
(대표작성 소설가 노희준)